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 당면정책, 지도, 연구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 FOCUS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산물 생산분포 특성 및 생산지도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머 리 말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연환경 보호,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및 분산 거주 의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점과 함께 귀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귀농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는 인구학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귀농 인구는 원주민들과 갈등도 빈번할 수 있으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촌에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귀농인 성공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귀촌인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2천만 인구의 배후시장이 있는 경기도 농업·농촌은 신규 귀농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지가에 임차 등 농지확보도 어려운 여건은 귀농인에게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귀농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역 귀농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귀농인이 영농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 농촌일자리 만들기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및 조사에 협조해 주신 경기도 귀농인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자료가 지역의 귀농인과 향후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의 귀농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나아가 귀농관련 정책 개발 및 집행하는 부서에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 석 철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관련 선행 연구	4
3. 연구 목적	6
4. 연구방법 및 범위	6
II. 경기도 농가인구 및 귀농인 현황 분석	9
1. 경기도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9
2.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현황	12
3. 경기도 귀농인 연령별 현황	15
4.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 현황	16
III. 귀농인 실태조사 분석	19
1. 귀농인 실태조사 개요	19
2. 귀농 결정 동기	21
3. 귀농 전 준비과정	23
4.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현황	25
5.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 활동	29
6. 지역사회 참여 활동	31
7. 귀농 이후 농촌 생활 및 농업소득 만족도	32
IV. 귀농인 성공적 정착 요인 분석	39
1.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변수와 요인 설정	39
2.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회귀분석)	40
V. 귀농인 애로사항과 지원프로그램	45
1. 귀농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45
2.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8
3.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도 분석	49
4. 경기도 귀농인이 참여하는 농촌일자리 만들기 제안	50
VI 요약 및 결론	57



표 목차

<표 1>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현황	11
<표 2> 경기도 시군별 귀농인 현황	13
<표 3>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	14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
<표 5> 귀농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21
<표 6> 귀농지로 경기도(시군)를 선택한 동기	22
<표 7> 귀농 전 준비기간	23
<표 8> 귀농 준비과정	24
<표 9> 영농활동 및 농업경영에 도움을 많이 준 기관 및 단체	25
<표 10> 주 재배작목 비중	26
<표 11> 귀농인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기대 소득 수준	28
<표 12> 기술 및 경영 개선 노력	29
<표 13> 기술 및 경영 개선 정도	30
<표 14> 영농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분야	30
<표 15> 귀농 후 농업·농촌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34
<표 16>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35
<표 17>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1
<표 18>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2
<표 19> 귀농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45
<표 20>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유형	51
<표 21> 여민동락공동체 우수사례	52
<표 22> 경기도 소규모 창업농장 협업 프로그램 운영	53
<표 23> 홍성군 젊은 협업농장 우수사례	54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및 경기도 농가 추이	9
<그림 2> 전국 및 경기도 농가인구 추이	10
<그림 3> 전국 및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추이	12
<그림 4>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연령 분포	15
<그림 5>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별 귀농가구 현황	16
<그림 6> 귀농인 연차별 비교	27
<그림 7> 창업농 및 승계농 비교	28
<그림 8>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시 비교	28
<그림 9> 귀농인 지역주민과 갈등 원인	31
<그림 10> 창업농 및 승계농 지역 모임 및 활동 참여 정도	32
<그림 11> 귀농인의 귀농생활 전반적 만족도	32
<그림 12> 귀농인이 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36
<그림 13> (경제적 요인) 영농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39
<그림 14> (경제외적 요인)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40
<그림 15>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8
<그림 16>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도 분석	49



서론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7년간(2013년~2019년)의 전국 및 경기도 농가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 농가 수는 2019년에 1,007천 농가로 2013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 최근 경기도 농가 수는 2013년 대비 17.7% 감소하여 전국 대비 5.9%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마상진, 2017)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경기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 등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이 필요하고 바로 귀농·귀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김경덕 등(2012)은 귀농자 1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 편익은 연간 1,639만원으로 추산하였고, 이수행 등(2017)은 귀농·귀촌의 증가와 함께 농촌창업의 확대는 농촌의 새로운 인구 유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및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인이 농촌에 유입되어 생활하면서 기존 원주민들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주민으로서 귀농인이 원주민간의 원만한 관계 개선과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한편, 전국적으로 귀농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경기도 농가인구는 연평균 13%의 감소와 함께 귀농인 유입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귀농인 유입이 감소추세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있으나,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의 삶이 기대한 것 보다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귀농 초기에 미약한 영농기반과 판로확보로 귀농 전 가구소득에 비해 적은 농업소득으로 많은 귀농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농 초기에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소득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농가인구와 귀농인 동반 감소추세의 여건에서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관련 선행 연구

- 김정섭 등(2017)은 귀농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신규취농, 주거, 일자리 측면의 정책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수행(2018)은 귀농인의 농촌유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전업농 수준의 신규농업인 유입은 미흡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2011)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에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소득지원을 위해 농업 외의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을 마련하여 귀농초기의 정착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시현·최용욱(2014)은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사회의 거시적 여건에 비추어 귀농·귀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농촌사정으로 인한 귀농 비용증가와 농업의 미래 불확실성은 귀농·귀촌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정책기조를 청장년층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은퇴 귀농인이 적은 비용으로 귀농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마상진·정은미·김경인(2017)은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에서 청년농업인의 정착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진입유형별,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농 생태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 마상진·김남훈(2019)은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청년 창업농의 농업소득,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 그리고 삶의 질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창농준비자금, 영농경력, 경영장부 기록여부는 농가소득에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지역사회 기대와 관심, 멘토의 유무, 생계가능성 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2020)은 2019년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삶에 대한 행복감 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 가족 > 경제적 안정 순으로 답했다.

- 김정섭·이정해(2017)는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에서 한국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젊은 신규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농업부문 인적자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규 취농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인구가 농촌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 조직 활동 참여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박대식·마상진·황정님·김경인(2018)은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을 관심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정착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실행단계의 주요 성공요인은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노력,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재능의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착단계의 주요 성공요인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이다.

- 최윤지·황정임·신효연(2014)은 귀농인의 인구통계적 변인, 귀농특성 변인에 따라 정주민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귀농인의 정주민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수행 등(2017)은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기도 농촌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경기도 예비 농업 창업존 운영, 그리고 개방형 농촌창업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 이수행 등(2018)은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연구에서 농업창업을 통한 청년농부의 육성 방식을 현행의 교육, 훈련, 자금융자 등 위주에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청년 농부육성시스템 개선과 경기도형 임대농장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귀농인 표본 조사를 통해 귀농실태 분석과 영농정착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농업소득(경제적 요인)과 농촌생활의 만족도(경제외적 요인)로 구분하여 계량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귀농인이 원하는 요구도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농촌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범위

- 전국과 경기도의 농가 수, 농가인구, 그리고 귀농인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7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별로 농가인구 및 귀농인구의 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 경기도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 조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자인 귀농인 명단을 추천받았다. 추천 귀농인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우편발송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율은 80%를 넘었고, 회수한 설문지는 각각 검토 후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 주요 조사내용은 귀농 유형 및 동기 등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정보, 교육 및 기반조성 등 영농준비 과정, 영농규모 및 농업소득 등 농업경영 변화, 농촌생활 및 삶의 질 등 귀농만족도, 그리고 귀농에 따른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경기도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영농정착 성공의 척도를 농가소득과 삶의 질 만족으로 가정하고 농지특성, 창농과정, 농가경영특성, 지역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이 귀농인의 정착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귀농인의 영농정착 관련 성공척도에 두 가지 요인을 설정 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영농성과로서 농업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외적 요인으로 귀농인의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 영농경력 5년 이하 귀농인의 낮은 소득수준과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분석 중 농촌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하여 경기도 귀농인을 위한 농촌일자리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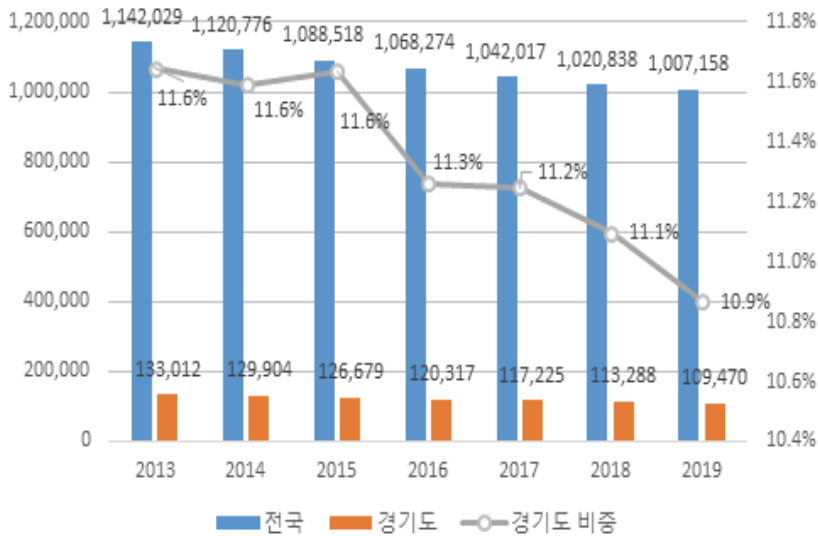
경기도 농가인구 및 귀농인 현황 분석

II. 경기도 농가인구 및 귀농인 현황 분석

1) 경기도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1) 전국 및 경기도 농가 추이 (2013~2019)

-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전국 및 경기도 농가 추이를 (그림 1)과 같이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전국 농가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3년 1,142천 농가에서 2019년 1,007천 농가로 2013년 대비 11.8% 감소하였다. 그리고 연평균 증감률은 $\Delta 2.1\%$ 이었다.
- 경기도 농가 수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33천 농가에서 2019년 109천 농가로 2013년 대비 17.7% 감소하여 전국 대비 5.9%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평균 증감률은 $\Delta 3.2\%$ 로 전국 농가 수 증감률보다 1.1%p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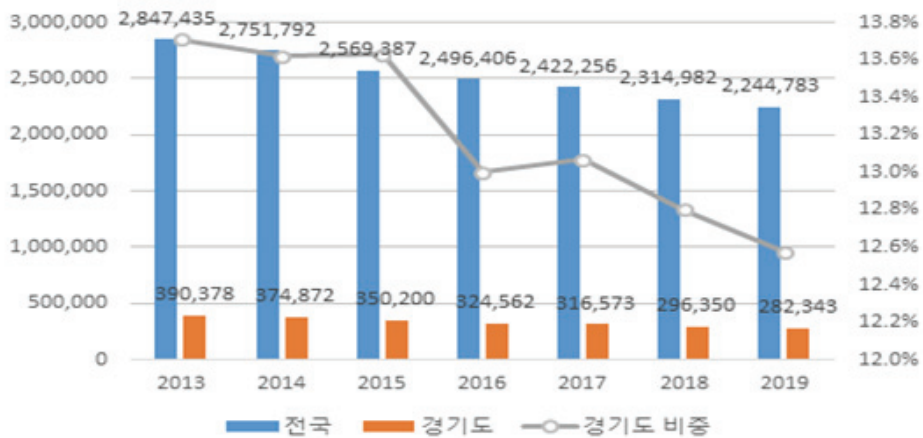
자료 :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19)

<그림 1> 전국 및 경기도 농가 추이

2) 전국 및 경기도 농가인구 추이(2013~2019)

-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전국 및 경기도 농가인구 추이를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전국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3년 2,847천명에서 2019년 2,245천명으로 2013년 대비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평균 증감률은 $\Delta 3.9\%$ 로 나타났다.

- 경기도 농가인구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90천명에서 2019년 282천명으로 2013년 대비 27.7%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국 농가인구 감소율에 비하여 6.5%p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평균 증감률은 $\Delta 5.3\%$ 로 나타나 전국 농가인구 감소율보다 1.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대비 경기도 농가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3.7%에서 2019년 12.6%로 1.1%p 하락하였으며, 농가 수 비율 역시 2013년 11.6%에서 2019년 10.9%로 0.7%p 하락하였다.



자료 :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19)

<그림 2> 전국 및 경기도 농가인구 추이

3)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현황

-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화성시 31,589명(9.7%), 평택시 23,392명(7.2%), 안성시 21,252명(6.5%), 이천시 21,188명(6.5%), 파주시 20,398명(6.3%), 여주시 20,003명(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기준으로 화성시 29,567명(10.5%), 평택시 20,153명(7.1%), 안성시 19,882(7.0%), 파주시 18,519(6.6%), 이천시 16,939명(6.0%), 여주시 16,875명(6.0%), 고양시 15,442명(5.5%) 등 순 이었다(표 1).
- 2016년 대비 2019년 농가인구의 변화는 하남시 $\Delta 35.8\%$, 군포시 $\Delta 30.1\%$, 구리시 $\Delta 26.5\%$, 남양주시 $\Delta 25.7\%$, 의왕시 $\Delta 23.0\%$, 이천시 $\Delta 20.1\%$ 등 최근 신도시 개발 등이 많았던 도농복합 시군들이 경기도 평균 $\Delta 13.0\%$ 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양시 $\Delta 3.1\%$, 김포시 $\Delta 6.4\%$, 포천시 $\Delta 6.4\%$, 안성시 $\Delta 6.4\%$, 연천군 $\Delta 7.1\%$, 고양시 $\Delta 8.3\%$, 시흥시 $\Delta 8.4\%$, 파주시 $\Delta 9.2\%$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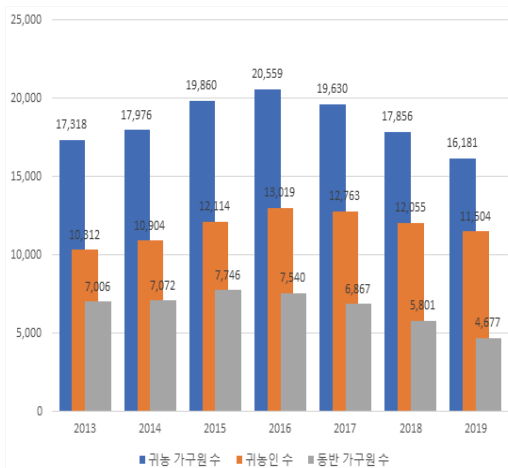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3년간 증감률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경기도	324,562	100%	316,573	100%	296,350	100%	282,343	100%	△13.0%
수원시	9,428	2.9%	9,036	2.9%	8,412	2.8%	8,213	2.9%	△12.9%
성남시	2,769	0.9%	2,924	0.9%	2,581	0.9%	2,293	0.8%	△17.2%
의정부시	3,405	1.0%	3,341	1.1%	3,052	1.0%	2,936	1.0%	△13.8%
안양시	1,780	0.5%	1,722	0.5%	1,642	0.6%	1,724	0.6%	△3.1%
부천시	2,783	0.9%	2,734	0.9%	2,479	0.8%	2,383	0.8%	△14.4%
광명시	1,889	0.6%	1,925	0.6%	1,730	0.6%	1,647	0.6%	△12.8%
평택시	23,392	7.2%	22,192	7.0%	21,037	7.1%	20,153	7.1%	△13.8%
동두천시	2,087	0.6%	2,022	0.6%	1,866	0.6%	1,866	0.7%	△10.6%
안산시	5,283	1.6%	5,097	1.6%	4,721	1.6%	4,449	1.6%	△15.8%
고양시	16,838	5.2%	16,417	5.2%	15,476	5.2%	15,442	5.5%	△8.3%
과천시	1,079	0.3%	1,136	0.4%	1,081	0.4%	919	0.3%	△14.8%
구리시	1,734	0.5%	1,615	0.5%	1,371	0.5%	1,274	0.5%	△26.5%
남양주시	15,850	4.9%	15,481	4.9%	13,191	4.5%	11,769	4.2%	△25.7%
오산시	3,828	1.2%	3,686	1.2%	3,469	1.2%	3,379	1.2%	△11.7%
시흥시	4,940	1.5%	4,868	1.5%	4,643	1.6%	4,524	1.6%	△8.4%
군포시	1,185	0.4%	1,077	0.3%	873	0.3%	828	0.3%	△30.1%
의왕시	1,981	0.6%	1,969	0.6%	1,717	0.6%	1,525	0.5%	△23.0%
하남시	4,203	1.3%	3,867	1.2%	3,054	1.0%	2,699	1.0%	△35.8%
용인시	18,624	5.7%	18,019	5.7%	16,631	5.6%	15,224	5.4%	△18.3%
파주시	20,398	6.3%	19,584	6.2%	18,911	6.4%	18,519	6.6%	△9.2%
이천시	21,188	6.5%	20,049	6.3%	17,437	5.9%	16,939	6.0%	△20.1%
안성시	21,252	6.5%	21,152	6.7%	20,147	6.8%	19,882	7.0%	△6.4%
김포시	14,724	4.5%	13,683	4.3%	13,915	4.7%	13,779	4.9%	△6.4%
화성시	31,589	9.7%	32,073	10.1%	30,404	10.3%	29,567	10.5%	△6.4%
광주시	11,479	3.5%	11,064	3.5%	10,508	3.5%	9,406	3.3%	△18.1%
양주시	11,098	3.4%	10,847	3.4%	10,121	3.4%	9,722	3.4%	△12.4%
포천시	14,788	4.6%	14,310	4.5%	14,352	4.8%	13,836	4.9%	△6.4%
여주시	20,003	6.2%	19,984	6.3%	18,690	6.3%	16,875	6.0%	△15.6%
연천군	7,668	2.4%	7,731	2.4%	7,415	2.5%	7,125	2.5%	△7.1%
가평군	9,701	3.0%	9,655	3.0%	8,936	3.0%	8,261	2.9%	△14.8%
양평군	17,595	5.4%	17,314	5.5%	16,488	5.6%	15,185	5.4%	△13.7%

2)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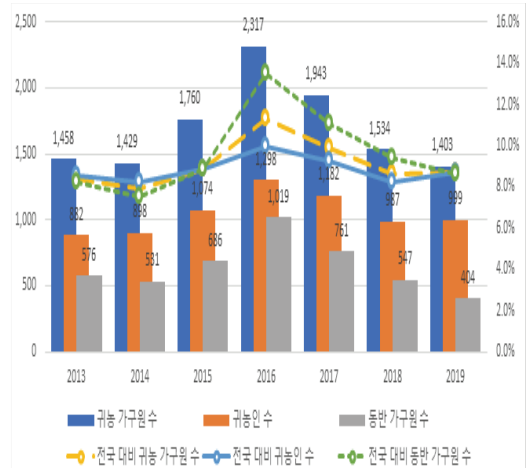
1) 전국 및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추이 (2013~2019)

-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전국 및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추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국 귀농인은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11,504명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고, 2016년 이후 평균 증감률은 $\Delta 4.0\%$ 이었다.
- 전국 귀농 가구원 수와 동반 가구원 수는 각각 16,181명, 4,67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인 중 남자는 68.6%(7,831명), 동반가구원 중 여자가 61.6%(2,881명)을 차지하였다.
- 경기도 귀농인(2019년)은 999명(전국 대비 8.7%)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귀농 가구원 수와 동반가구원 수는 각각 1,403명, 404명으로 전년 대비 8.5%, 2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인 중 남자는 66.6%(666명)이었고, 동반가구원 중 여자가 61.1%(247명)을 차지하였다.

(전국 귀농인 및 가구원 현황)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현황)



자료 : 귀농·귀촌인통계, 통계청(2020)

<그림 3> 전국 및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추이

2) 경기도 시군별 귀농인 현황 (2016~2019)

- 2019년 기준 경기도 전체 귀농인 999명 중 시군별 귀농인은 양평군이 14.6%(14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화성시 10.6%(106명), 안성시 8.2%(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주시 2.7%(27명), 광주시 3.5%(35명), 연천군 4.4%(44명), 김포시 5.0%(50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귀농인 전체 수는 4,466명이며, 같은 기간 귀농인 수 비율은 양평군 578명(12.9%), 화성시 548명(12.3%), 여주시 388명(8.7%), 안성시 368명(8.2%) 순으로 분석되었다.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전체 귀농인 대비 시군 귀농인 비율이 높아진 시군은 양평군 (2.4%p 상승), 용인시(1.4%p 상승), 남양주시(1.1%p 상승), 김포시(0.8%p 상승) 등이 있으며, 반대로 비율이 낮아진 시군은 화성시(2.3%p 하락), 여주시(1.1%p 하락), 이천시(1.0%p 하락), 평택시(0.9%p 하락), 광주시(0.7%p 하락) 등 이었다.

<표 2> 경기도 시군별 귀농인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귀농인	비율(%)	귀농인	비율(%)	귀농인	비율(%)	귀농인	비율(%)
합계	1,298	100%	1,182	100%	987	100%	999	100%
양평군	159	12.2%	172	14.6%	101	10.2%	146	14.6%
화성시	168	12.9%	157	13.3%	117	11.9%	106	10.6%
안성시	111	8.6%	90	7.6%	85	8.6%	82	8.2%
여주시	115	8.9%	110	9.3%	85	8.6%	78	7.8%
용인시	74	5.7%	62	5.2%	62	6.3%	71	7.1%
남양주시	72	5.5%	59	5.0%	42	4.3%	66	6.6%
평택시	95	7.3%	97	8.2%	73	7.4%	64	6.4%
이천시	94	7.2%	79	6.7%	65	6.6%	62	6.2%
포천시	71	5.5%	68	5.8%	56	5.7%	60	6.0%
파주시	70	5.4%	49	4.1%	62	6.3%	56	5.6%
가평군	65	5.0%	55	4.7%	49	5.0%	52	5.2%
김포시	55	4.2%	66	5.6%	62	6.3%	50	5.0%
연천군	54	4.2%	52	4.4%	51	5.2%	44	4.4%
광주시	55	4.2%	44	3.7%	46	4.7%	35	3.5%
양주시	40	3.1%	22	1.9%	31	3.1%	27	2.7%

3)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

- 2019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표 3)이 높은 시군은 양평군 0.96%, 가평군 0.63%, 연천군 0.62%, 남양주시 0.56%, 용인시 0.47%, 여주시 0.46% 순으로 나타났고, 귀농인 비율이 낮은 시군은 양주시 0.28%, 파주시 0.30%, 평택시 0.32%, 화성시 0.36%, 김포시 0.36% 순으로 분석되었다.

- 2016년 대비 2019년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이 높아진 시군은 남양주시 0.11%p, 용인시 0.07%p, 양평군 0.06%p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화성시 $\Delta 0.17\%p$, 여주시 $\Delta 0.11\%p$, 안성시 $\Delta 0.11\%p$, 광주시 $\Delta 0.11\%p$, 평택시 $\Delta 0.09\%p$, 연천군 $\Delta 0.08\%p$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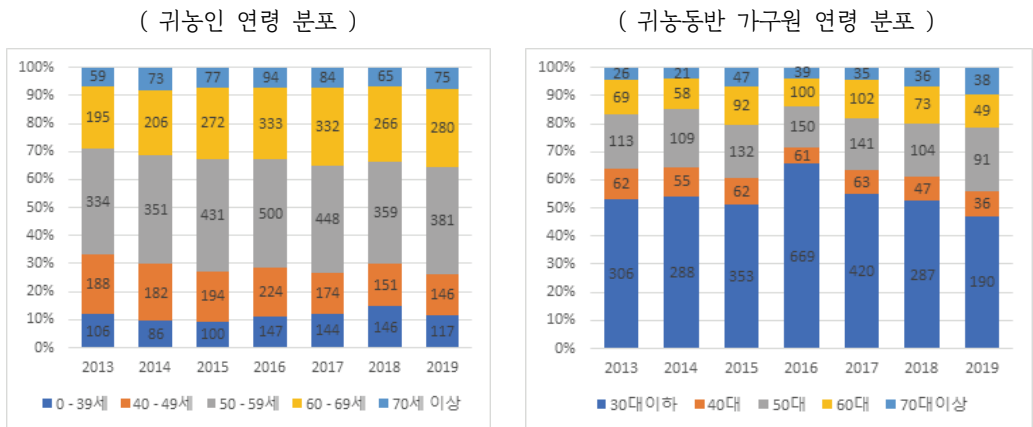
<표 3> 경기도 시군별 농가인구 대비 귀농인 비율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농가인구	귀농인	비율	농가인구	귀농인	비율	농가인구	귀농인	비율	농가인구	귀농인	비율
경기도	324,562	1,298	0.40%	316,573	1,182	0.37%	296,350	987	0.33%	282,343	999	0.35%
양평군	17,595	159	0.90%	17,314	172	0.99%	16,488	101	0.61%	15,185	146	0.96%
화성시	31,589	168	0.53%	32,073	157	0.49%	30,404	117	0.38%	29,567	106	0.36%
안성시	21,252	111	0.52%	21,152	90	0.43%	20,147	85	0.42%	19,882	82	0.41%
여주시	20,003	115	0.57%	19,984	110	0.55%	18,690	85	0.45%	16,875	78	0.46%
용인시	18,624	74	0.40%	18,019	62	0.34%	16,631	62	0.37%	15,224	71	0.47%
남양주시	15,850	72	0.45%	15,481	59	0.38%	13,191	42	0.32%	11,769	66	0.56%
평택시	23,392	95	0.41%	22,192	97	0.44%	21,037	73	0.35%	20,153	64	0.32%
이천시	21,188	94	0.44%	20,049	79	0.39%	17,437	65	0.37%	16,939	62	0.37%
포천시	14,788	71	0.48%	14,310	68	0.48%	14,352	56	0.39%	13,836	60	0.43%
파주시	20,398	70	0.34%	19,584	49	0.25%	18,911	62	0.33%	18,519	56	0.30%
가평군	9,701	65	0.67%	9,655	55	0.57%	8,936	49	0.55%	8,261	52	0.63%
김포시	14,724	55	0.37%	13,683	66	0.48%	13,915	62	0.45%	13,779	50	0.36%
연천군	7,668	54	0.70%	7,731	52	0.67%	7,415	51	0.69%	7,125	44	0.62%
광주시	11,479	55	0.48%	11,064	44	0.40%	10,508	46	0.44%	9,406	35	0.37%
양주시	11,098	40	0.36%	10,847	22	0.20%	10,121	31	0.31%	9,722	27	0.28%

3 경기도 귀농인 연령별 현황

1)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연령별 분포(2013~2019)

- 경기도 귀농인 연령별 분포(2019년)는 (그림 4)에서 보듯이 50대가 38.1%(38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8.0%(280명), 40대 14.6%(146명), 30대 이하 11.7%(117명), 70대 이상 7.5%(7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귀농인의 연령을 2013년과 비교할 때 30대 이하는 0.3%p 감소, 40대는 6.7%p 감소, 50대는 0.3%p 증가, 60대는 5.9%p 증가, 70대 이상은 0.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경기도 귀농인 동반 가구원의 연령별 분포(2019년)는 30대 이하 47.1%(190명), 40대 8.9%(36명), 50대 22.5%(91명), 60대 12.1%(49명), 70대 이상 9.4%(38명)로 나타났다.



자료 :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2020)

<그림 4> 경기도 귀농인 및 가구원 연령 분포

2) 전국과 경기도 귀농인 연령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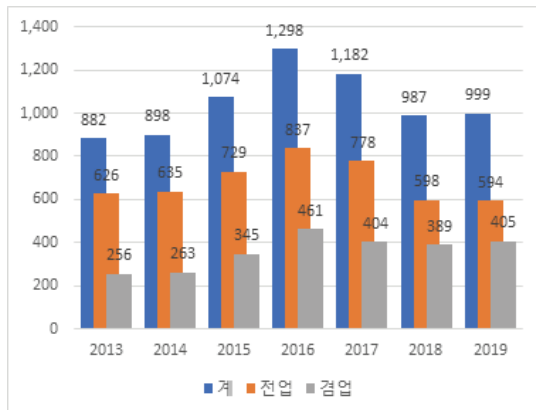
- 전국과 경기도 귀농인의 연령층을 비교할 때 2019년의 경우 경기도가 40대 이하 층은 0.6% 높고, 50대는 0.8% 높으며, 60대 이상에서는 1.4%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경기도 귀농인의 연령이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3년 이후 연령층 변화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전국에 비하여 30대, 40대, 50대는 감소폭이 각각 0.5%p, 0.8%p, 2.5%p 낮게 나타나 전국에 비해 경기도 귀농인은 비교적 젊은 층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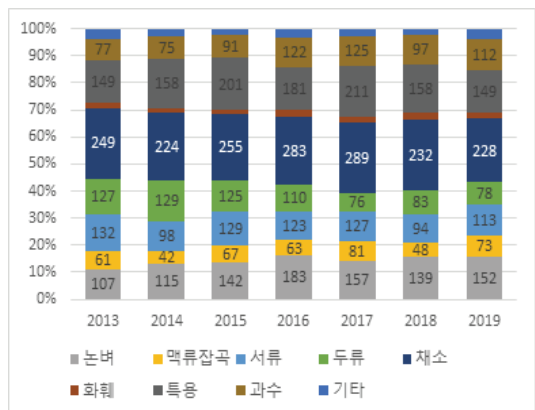
1)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별 귀농가구 현황(2013~2019)

- 경기도 귀농인의 전·겸업별 현황(2019년)은 전업농이 59.5%(594명), 겸업농이 40.5%(405명)이며, 전업농과 겸업농은 전년 대비 각각 0.7%감소,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 경기도 귀농인의 전업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업 비율은 2013년 71.0%에서 2019년 59.5%로 9.7%p 감소하였다.
- 재배작목별 귀농가구 수는 채소가 228가구로 가장 많고, 논벼 152가구, 특용 149가구, 서류 11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2019년의 재배작목별 가구는 논벼, 과수, 맥류잡곡, 화훼 순으로 가구 수 증가가 높았으며, 두류, 채소, 서류의 경우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겸업별 귀농인 현황)



(재배작목별 귀농가구 현황)



자료 : 귀농·귀촌인통계, 통계청(2020)

<그림 5>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별 귀농가구 현황

2) 전국과 경기도 귀농인 전·겸업 및 재배작목 비교

- 전국과 경기도 귀농인의 전·겸업을 비교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전업은 9.7%p 작게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전업 비율이 감소 추세 역시 경기도가 더 빠르게 감소(Δ3.5%p)하고 있다.
- 재배작목별로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채소와 논벼가 가장 높은 재배 품목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특용과 서류의 재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III

귀농인 실태조사 분석



III. 귀농인 실태조사 분석

1 귀농인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경기도 귀농인이 영농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 대상인 경기도 귀농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기간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우편발송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율은 80%를 넘었고, 회수한 설문지는 각각 검토 후 전화를 통해 보완 조사하였다.
- 주요 조사내용의 구성은 귀농 유형 및 동기 등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정보, 교육 및 기반 조성 등 영농준비 과정, 영농규모 및 농업소득 등 농업경영 변화, 농촌생활 및 삶의 질 등 귀농만족도, 그리고 귀농에 따른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이다.
- 이번 귀농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180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지역은 연천군 등 13개 시군이었고, 시군별로 화성시가 28명(15.4%)으로 가장 많았고, 안성시(12.8%), 가평군(11.7%), 용인시, 파주시, 여주시, 평택시 순이었다.
- 응답 귀농인의 연령분포는 60대 이상(41.1%)이 가장 많고, 50대(33.9%), 40대(14.4%), 30대(7.8%), 20대(2.8%)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영농경력별 구성을 살펴 보면, 5년 이하의 농업인은 97명(53.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5년 초과 10년 이하 귀농인으로 전체의 31.1%로 나타났다.
- 한편, 본 연구는 귀농인 중 신규창업농과 승계농간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여 영농정착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응답자의 귀농유형을 분석할 경우, (표 4)와 같이 창업농과 승계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 중 창업농은 127명으로 71%를 차지하였고, 승계농은 53명인 29%로 나타났다.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창업능		승계능		계	
특성	시군	빈도	%	빈도	%	빈도	%
농촌지역	연천군	8	6.3	3	5.7	11	6.1
	가평군	15	11.8	6	11.3	21	11.7
	양평군	8	6.3	2	3.8	10	5.6
도농복합	파주시	7	5.5	8	15.1	15	8.3
	고양시	1	0.8	1	1.9	2	1.1
	포천시	4	3.1	1	1.9	5	2.8
	남양주	3	2.4	0	0.0	3	1.7
	양주시	0	0.0	1	1.9	1	0.6
	광주시	2	1.6	0	0.0	2	1.1
	여주시	10	7.9	4	7.5	14	7.8
	이천시	8	6.3	2	3.8	10	5.6
	용인시	13	10.2	5	9.4	18	10.0
	안성시	15	11.8	8	15.1	23	12.8
	평택시	11	8.7	2	3.8	13	7.2
	화성시	18	14.2	10	18.8	28	15.4
	김포시	4	3.1	0	0.0	4	2.2
	계		127	100.0	53	100.0	180
연령	20대	3	2.4	2	3.8	5	2.8
	30대	8	6.3	6	11.3	14	7.8
	40대	16	12.6	10	18.9	26	14.4
	50대	44	34.6	17	32.0	61	33.9
	60대이상	56	44.1	18	34.0	74	41.1
	계		127	100.0	53	100.0	180
성별	남성	72	56.7	40	75.5	112	62.2
	여성	55	43.3	13	24.5	68	37.8
	계		127	100.0	53	100.0	180
영농경력	5년이하	68	53.5	29	54.7	97	53.9
	5년초과~10년이하	43	33.9	13	24.5	56	31.1
	10년초과~15년이하	11	8.7	2	3.8	13	7.2
	15년초과~20년이하	5	3.9	9	17.0	14	7.8
	계		127	100.0	53	100.0	180

2 귀농 결정 동기

1) 귀농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 귀농을 결정한 동기는 (표 5)에서 보듯이 중복 답변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은퇴 후 인생 2모작을 농업농촌에서 시작하기 위하여’(1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농업분야에서 하고 싶은 사업과 꿈이 있어서’(14.2%), ‘도시생활과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 위해’(11.9%),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9.7%), 그리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9.4%)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창업농과 승계농으로 구분 할 경우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승계농은 ‘부모의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기 위하여’(13.3%)이 두 번째로 많은 귀농결정 동기로 나타났다.

<표 5> 귀농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복 답변)

구 분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은퇴 후 인생 2모작을 농업농촌에서 시작하기 위하여	154	20.4	46	14.9	200	18.8
부모의 가업인 농업을 이어 받기 위해	4	0.5	41	13.3	45	4.2
농업분야에서 하고 싶은 사업과 꿈이 있어서	118	15.6	33	10.7	151	14.2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41	5.4	23	7.5	64	6.0
도시생활과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 위해	91	12.0	36	11.7	127	11.9
자신의 역량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37	4.9	16	5.2	53	5.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71	9.4	29	9.4	100	9.4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느끼고 위해	47	6.2	22	7.1	69	6.5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74	9.8	29	9.4	103	9.7
자연환경 좋은 농촌에서 가족과 살기 위해	68	9.0	15	4.9	83	7.8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48	6.4	15	4.9	63	5.9
기타	3	0.4	3	1.0	6	0.6
계	756	100.0	308	100.0	1064	100.0

※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로 계산함

2) 귀농지로 경기도(시군)를 선택한 동기

- 귀농지로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을 선택한 이유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교통이 좋고 농촌에 살면서 도시왕래가 쉬워서’(2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계농의 가장 많은 답변은 ‘농지나 주택 등 농업기반을 소유하고 있어서’(27.5%)로 창업농과 승계농간에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 역시 창업농은 ‘수도권 시장이 크고 잠재적 소비자가 많아서’(17.6%)를 선택하였고 승계농은 ‘교통이 좋고 농촌에 살면서 도시왕래가 쉬워서’(21.1%)를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6〉 귀농지로 경기도(시군)를 선택한 동기 (중복 답변)

구 분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교통이 좋고 농촌에 살면서 도시왕래가 쉬워서	243	32.9	63	21.1	306	29.5
수도권 시장이 크고 잠재적 소비자가 많아서	130	17.6	29	9.7	159	15.3
농촌경관, 마을 분위기 등 농촌환경이 좋아서	49	6.6	17	5.7	66	6.4
향후 지역개발 등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50	6.8	10	3.3	60	5.8
임차농지를 구하기 용이해서	11	1.5	8	2.7	19	1.8
경기도의 교육 및 지원 정책이 좋아서	35	4.7	10	3.3	45	4.3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좋은 작목이 많아서	8	1.1	6	2.0	14	1.3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용이해서	22	3.0	18	6.0	40	3.9
가족이나 선후배 등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89	12.0	50	16.7	139	13.4
농지나 주택 등 농업기반을 소유하고 있어서	94	12.7	82	27.5	176	17.0
나와 비슷한 귀농인이 많은 지역이기에	3	0.4	3	1.0	6	0.6
기타	5	0.7	3	1.0	8	0.9
계	739	100.0	299	100.0	1038	100.0

※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로 계산함

3 귀농 전 준비 과정

1) 귀농 전 준비기간

○ 귀농 전 준비하는 기간에는 창업농과 승계농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각 기간 별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귀농 전 준비기간

귀농전 준비 기간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1년 미만	16	12.6	14	26.4	30	16.7
1년 이상 2년 미만	29	22.8	8	15.1	37	20.6
2년 이상 3년 미만	38	29.9	14	26.4	52	28.9
3년 이상 4년 미만	28	22.0	11	20.8	39	21.7
4년 이상	16	12.7	6	11.3	22	12.1
계	127	100.0	53	100.0	180	100.0

2) 귀농 준비과정에 중요한 항목

- 귀농 준비과정에 중요한 항목을 물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척도(가장 중요하다 5점 ~ 별로 중요치 않다 1점)로 분석하였다. 창업농은 ‘귀농 후 농업농촌 삶에 대한 가치 철학’(3.30점)이 가장 높았고 ‘농촌사회와 귀농지역에 대한 이해’(3.14점),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관계 준비’(3.09점) 순이었다.
- 그러나 승계농은 ‘부모 가족 및 친구 등 주변사람의 지원’(3.38점)으로 가장 높았다. ‘귀농 후 농업농촌 삶에 대한 가치 철학’(3.08점)으로 창업농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귀농 준비과정

구분	창업능		승계능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귀농후 농업농촌 삶에 대한 가치 철학 등	3.30	0.99	3.08	1.16	3.19	1.08
정착 기반 (토지, 자금 확보 등)	3.01	1.03	2.91	1.04	2.96	1.04
주거 공간 확보	3.07	1.18	2.89	1.25	2.98	1.22
영농 및 경영 기술과 경험	2.53	1.12	2.62	1.04	2.58	1.08
주변 사람의 지원 (부모, 가족 및 친구)	2.87	1.27	3.38	0.99	3.13	1.13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관계 준비	3.09	1.06	3.25	0.98	3.17	1.02
농촌사회와 귀농 지역에 대한 이해	3.14	0.99	3.17	1.05	3.16	1.02

3) 영농활동 및 농업경영에 도움을 많이 준 기관 및 단체

- 영농활동 및 농업경영에 도움을 준 기관 및 단체로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전체응답자의 3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 형제 및 지인(18.7%), 그리고 선배농업인 및 귀농인(15.0%) 순으로 나타났다.
- 위의 결과는 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귀농인 조사 협조를 받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영농활동의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는 현장의 접점에서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창업농과 승계농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 영농활동 및 농업경영에 도움을 많이 준 기관 및 단체(중복 답변)

사람이나 조직	귀농 초기		현재		계	
	빈도	%	빈도	%	빈도	%
귀농·귀촌지원센터	89	8.9	41	4.0	130	6.4
시군농업기술센터	335	33.7	363	35.1	698	34.4
지역 농협	37	3.7	75	7.2	112	5.5
농업계 학교, 농업연수기관	39	3.9	34	3.3	73	3.6
창업 지원 공공기관	12	1.2	5	0.5	17	0.8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등)	21	2.1	30	2.9	51	2.5
품목별 생산자 조직(작목반 등)	47	4.7	83	8.0	130	6.4
전문 경영 컨설턴트	7	0.7	22	2.1	29	1.4
민간 귀농·귀촌 단체(학교)	31	3.1	20	1.9	51	2.5
농업자재·부동산관련 업자	14	1.4	9	0.9	23	1.1
선배농업인, 귀농인	147	14.8	158	15.3	305	15.0
부모나 형제, 친척, 지인	202	20.3	178	17.2	380	18.7
기타	14	1.4	17	1.6	31	1.5
계	995	100.0	1,035	100.0	2,030	100.0

※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로 계산함

4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현황

1) 주 재배작목 비중

○ 조사한 귀농인의 주요 재배작목은 (표 10)에서 보듯이 창업농과 승계농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농은 과수(21.3%) > 시설채소(12.6%) 및 화훼(12.6%) > 버섯(10.2%) 순이었다. 한편 승계농은 과수(28.3%) > 벼(20.8%) > 노지채소(13.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중 과수를 주 재배작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23.3%)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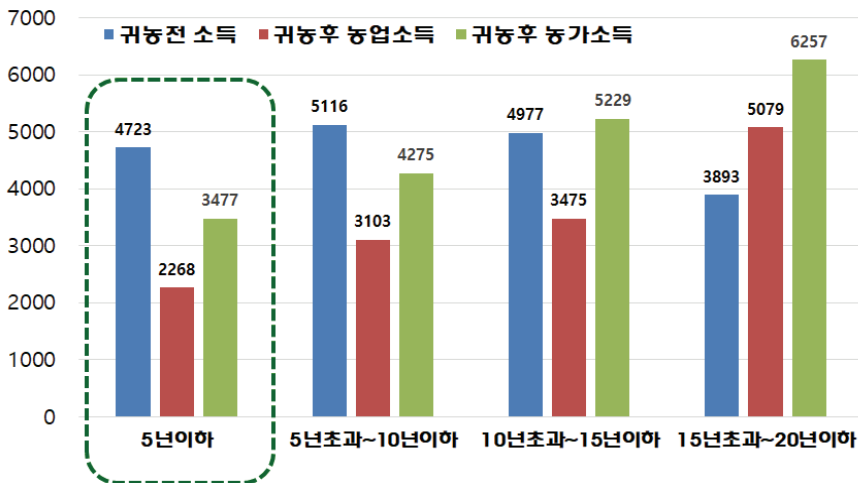
- 통계청(2020)의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의하면 귀농가구가 재배하는 주요 재배 작물은 채소가 43.9%로 가장 높았고, 논벼 30.5%, 과수 29.8%, 특용작물 24.2%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와 비교할 때 주요 재배작목의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 순위에 채소, 과수, 벼, 특용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경향이었다.

<표 10> 주 재배작목 비중

작목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벼	9	7.1	11	20.8	20	11.1
잡곡(보리, 옥수수)	1	0.8	0	0.0	1	0.6
두류(콩, 팥 등)	6	4.7	3	5.7	9	5.0
서류(감자, 고구마 등)	8	6.3	1	1.9	9	5.0
노지채소	7	5.5	7	13.2	14	7.8
시설채소	16	12.6	2	3.8	18	10.0
과수	27	21.3	15	28.3	42	23.3
화훼	16	12.6	3	5.7	19	10.6
특용/약용(인삼, 들깨 등)	10	7.9	3	5.7	13	7.2
버섯	13	10.2	1	1.9	14	7.8
축산(한우, 젓소)	0	0.0	2	3.8	2	1.1
축산(돼지)	1	0.8	0	0.0	1	0.6
축산(닭, 오리)	0	0.0	3	5.7	3	1.7
양봉, 양잠, 곤충	7	5.5	1	1.9	8	4.4
기타	6	4.7	1	1.9	7	3.9
계	127	100.0	53	100.0	180	100.0

2) 귀농 전후 소득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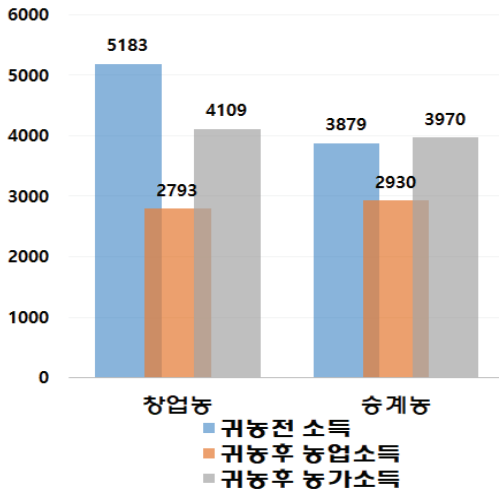
- 응답자의 귀농 전 가구소득과 귀농 후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그림 6). 그 결과 영농경력 5년 미만인 귀농인의 경우 귀농 후 농업소득(2,268만원) 및 농가소득(3,477만원)이 귀농 전 소득(4,723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농경력 15년 초과 ~ 20년 이하의 귀농인의 경우는 비로소 귀농 후 농업소득(5,079만원)과 농가소득(6,257만원)이 귀농 전 소득(3,893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2020)의 실태조사는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귀농 가구의 48.6%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 및 일용직 등 농업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고 조사하였다.
- 양측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귀농 초기 적은 농업소득으로 고통 받는 귀농인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귀농 초기에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소득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2020)는 귀농 후 소득기반 정착지원 방향으로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과 단기 취업 지원 등 농외소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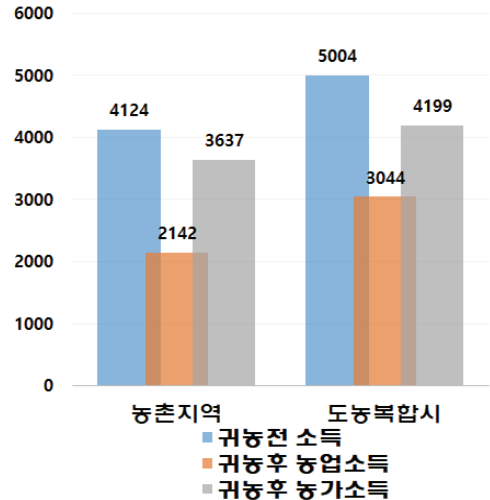
<그림 6> 귀농인 연차별 비교

- 창업농과 승계농간 귀농 전후 농업소득을 비교하면 창업농의 농업소득이 귀농전 소득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그리고 농촌지역의 귀농인이 도농복합시 지역에 비해 농업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이는 농촌지역이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마상진 등(2019) 연구는 청년창업농 중 승계농이 신규농 보다 높은 농업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마상진(2010)의 이전 연구에서는 신규농이 승계농에 비해 높은 영농성과를 창출한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였다.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과 농업 지식 및 기술 전수의 중요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신규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영농기반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창업농 및 승계농 비교



<그림 8>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시 비교

3)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기대 소득 수준

- 귀농 후 농업활동을 통하여 안정된 소득수준을 지속하기 위하여 1년 평균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서 귀농인 응답자는 평균 5,609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1).

<표 11> 귀농인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기대 소득 수준

구분	평균 (만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자 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연평균 소득	5,609	4,984.07	150	32,000	180

5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 활동

1) 기술 및 경영 개선 노력

- 귀농인의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활동 노력을 수량증대, 품질향상, 소득 창출, 비용절감, 안정적 시장확보, 새로운 시장개척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창업농의 경우 개선 노력이 높은 분야는 품질향상(3.69) > 새로운 시장개척(3.31) > 수량증대(3.26) > 비용절감(3.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계농이 개선 노력에 주력하는 분야는 품질향상(3.72) > 수량증대(3.13) > 소득창출(3.11)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농은 시장개척을 중요시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존 출하처가 확보되어 있는 승계농의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분야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2〉 기술 및 경영 개선 노력 (5점 척도)

구분	창업농		승계농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산성	수량 증대	3.26	1.23	3.13	1.24	3.20	1.24
	품질 향상	3.69	1.12	3.72	1.13	3.71	1.13
경영역량	소득 창출	3.17	1.11	3.11	1.15	3.14	1.13
	비용 절감	3.24	1.27	2.79	1.31	3.02	1.29
시장확보	안정적 시장 확보	3.17	1.32	2.98	1.23	3.08	1.28
	새로운 시장 개척	3.31	1.26	2.74	1.30	3.03	1.28

2) 농업교육을 통한 기술 및 경영 개선 정도

- 귀농인이 농업교육을 통해 기술 및 경영개선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번 조사는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농업교육 이수 전 영농기술 수준을 자가진단 결과 전체적으로 낮게(3.49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을 받기 전 농업교육을 통한 영농기술 향상 기대 수준은 5.49로 평균치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농업교육을 이수 후 영농기술 실제 수준을 자가평가한 결과는 6.20점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에게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표 13> 기술 및 경영 개선 정도 (10점 척도)

구분	창업농		승계농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업교육 이수 전 영농기술 수준	3.05	2.46	3.92	2.43	3.49	2.45
(교육 전) 농업교육을 통한 영농기술 기대 수준	5.50	2.46	5.47	2.40	5.49	2.43
(교육 후) 농업교육 이수 후 영농기술 실제 수준	6.15	1.75	6.25	1.93	6.20	1.84

3) 영농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 귀농인이 영농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의 우선순위를 (표 14)와 같이 조사하였는데 창업농과 승계농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분야는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농산물 홍보 마케팅’,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 개발’ 그리고 ‘식물병해충, 가축질병 예방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각되는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 요구는 그 다음을 따랐다.

<표 14> 영농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분야 (중복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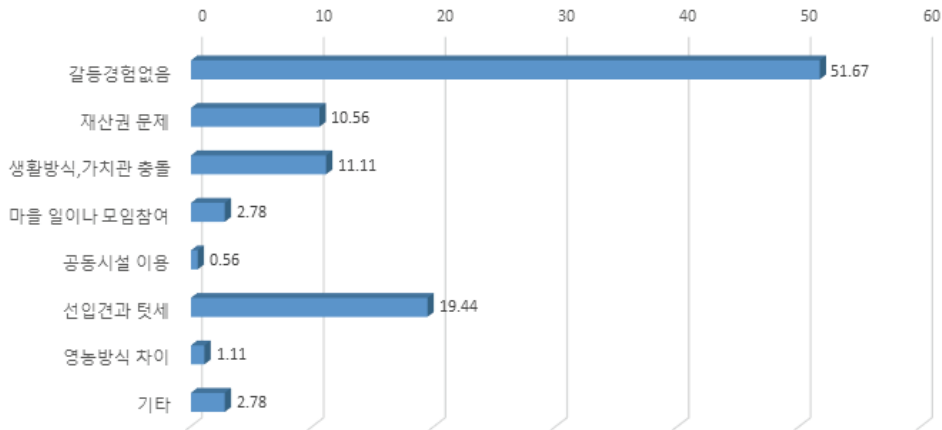
교육 분야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	151	20.2	61	19.2	212	19.9
환경보전, 안전한 먹거리 생산	43	5.8	28	8.8	71	6.7
식물병해충, 가축질병 예방 기술	82	11.0	40	12.6	122	11.5
농기계 운전 및 관리 기술	12	1.6	10	3.2	22	2.1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 대응 기술	52	7.0	25	7.9	77	7.2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 개발	91	12.2	33	10.4	124	11.7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	62	8.3	20	6.3	82	7.7
농업경영 및 회계관리 실무	27	3.6	15	4.7	42	4.0
창업실무(인허가, 사업등록 관련, 세무)	22	2.9	17	5.4	39	3.7
농산물 홍보 마케팅(SNS/Youtube 등)	106	14.2	30	9.5	136	12.8
농촌 마을공동체 만들기	28	3.8	10	3.2	38	3.6
체험농장 전문가 교육	39	5.2	8	2.5	47	4.4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	25	3.4	17	5.4	42	4.0
기타	6	0.8	3	0.9	9	0.8
계	746	100.0	317	100.0	1063	100.0

※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로 계산함

6 지역사회 참여 활동

1) 지역주민들과 갈등원인

○ 응답자의 51.7%인 대다수의 귀농인들은 지역주민들과 갈등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48.3%의 귀농인들은 기존 원주민들과 이런 저런 갈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귀농인 지역주민과 갈등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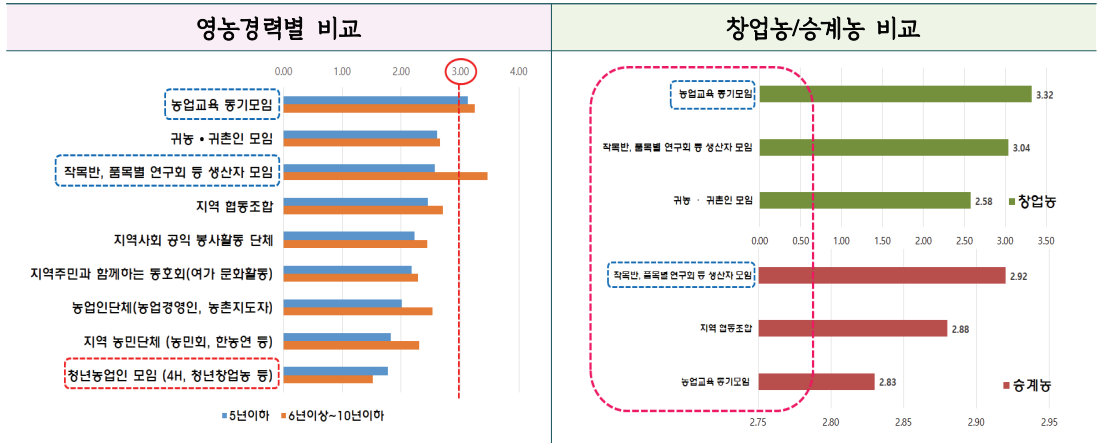
○ 주요 원인별로 분석하면 선입견과 텃세 등 부정적 시선 (19.4%), 생활방식, 가치관의 충돌 (11.1%), 집이나 토지 등의 재산권 문제 (10.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마을 일 또는 모임 참여, 영농방식 견해차이, 공동시설 이용 등이 있었다. 박문호 등(2012)의 연구에서도 갈등원인으로 지역주민의 선입견, 텃세, 그리고 귀농인의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단하였다.

2) 지역 모임 및 활동 참여 정도

○ 귀농인이 농촌 지역에 정착하고 기존 원주민들과 잘 화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각종 농업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김정섭 등(2012)은 신규 창업농, 귀농·귀촌인은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기도 귀농인의 지역 모임 및 각종 농업단체의 참여정도를 창업농과 승계농을 구분하여 (그림 10)과 같이 분석하였다.

○ 영농경력별 비교(5점 척도)에서 영농경력 5년 이하 귀농인은 주로 농업교육 동기모임의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6년 이상 귀농인은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 생산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농과 승계농간 비교(5점 척도)에서 창업농은 농업교육 동기모임 >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 생산자 모임 > 귀농·귀촌인 모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계농은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 생산자 모임 > 지역 협동조합 > 농업교육 동기모임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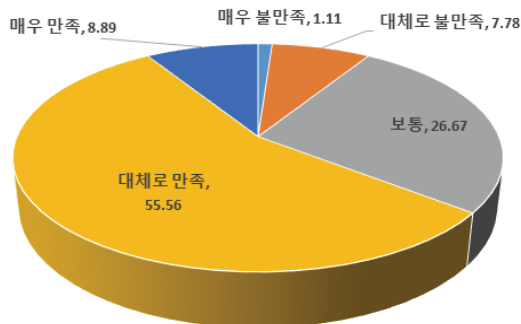


<그림 10> 창업농 및 승계농 지역 모임 및 활동 참여 정도

7 귀농 이후 농촌 생활 및 농업소득 만족도

1) 귀농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귀농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답변은 매우 만족에 8.89%, 대체로 만족에 55.56%, 보통은 26.67%, 대체로 불만족 7.78%, 그리고 매우 불만족은 1.11%로 각각 조사되었다(그림 11).
- 귀농·귀촌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이상이 64.5%이상이었으며,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점은 3.63점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귀농인들은 보통 이상 수준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11> 귀농인의 귀농생활 전반적 만족도

- 농림축산식품부(2020)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귀농 후 농촌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57.8%, ‘보통’이 34.9%, 그리고 ‘불만족’이 7.3%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불만족 이유로 영농기술 경험부족이 28.5%, 자금부족이 27.8% 등 이었다.
- 박공주 등(2006)은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농교육 준비가 많을수록, 귀농자본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추정하였다.
- 최윤지 등(2014)은 귀농정착자의 정주만족도를 생활시설 편리성, 자연환경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등 6개 하위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귀농인의 전체 정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귀농 후 농업·농촌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 본 연구는 농업·농촌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복지 등 10개 분야 26개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0개 분야는 보건의료, 복지, 교육, 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한 생활, 함께하는 생활, 지속가능한 경제 생활, 근로환경 등 건강한 생활, 그리고 즐기고 편안한 생활 등이다.
- 분야별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만족 5점 ~ 매우불만족 1점)에 의해 조사하였다. 만족도가 3점 미만으로 낮은 분야는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접근성, 복지시설 이용 및 농촌복지정책, 자녀교육여건, 대중교통 여건, 농작업 안전, 경제적 생활수준, 근로시간 및 작업 환경,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여가선용의 충분성 등 즐기고 편안한 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최윤지 등(2014)의 연구에서 생활시설 편리성에 만족도가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유사한 결과이다.
- 반면, 농업·농촌 만족도(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 분야 쾌적한 공기, 맑은 물 등과 농촌다운 매력과 경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년 없는 직장과 노후준비, 영농기술 등 농업관련 교육, 이웃과의 관계, 마을일 참여와 공동체 의식 형성, 범죄로부터 안전,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 정보통신 이용, 평생학습 기회,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윤지 등(2014)의 연구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표 15> 귀농 후 농업·농촌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5점 척도)

농업·농촌 생활의 분야		창업능		승계능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건 의료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2.76	1.08	2.70	0.85	2.73	0.97
	의료시설 접근성	2.63	1.06	2.62	0.97	2.63	1.02
복지	복지시설 이용	2.76	1.03	2.51	0.87	2.64	0.95
	농촌복지정책	2.78	0.93	2.62	1.00	2.70	0.97
교육	영농기술 등 농업관련 교육	3.57	0.99	3.45	0.89	3.51	0.94
	평생학습 기회	3.11	0.98	3.15	0.79	3.13	0.89
	자녀교육 여건	2.56	0.86	2.65	0.88	2.61	0.87
생활 여건	농촌생활 여건	3.03	0.86	2.89	0.87	2.96	0.87
	주거환경	3.11	0.98	2.81	0.92	2.96	0.95
	대중교통 여건	2.27	1.06	2.36	0.88	2.32	0.97
	정보통신 이용	3.02	0.97	3.23	0.93	3.13	0.95
환경· 경관	쾌적한 공기, 맑은 물 등	4.02	0.93	4.02	0.97	4.02	0.95
	농촌다운 매력과 경관	3.84	0.99	3.58	0.99	3.71	0.99
안전한 생활	범죄로부터 안전	3.19	1.01	3.25	0.83	3.22	0.92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2.88	1.11	2.91	0.88	2.90	1.00
	농작업 안전	2.94	0.92	2.79	0.84	2.87	0.88
함께하는 생활	이웃과의 관계	3.42	0.88	3.42	0.72	3.42	0.80
	마을일 참여와 공동체 의식 형성	3.18	0.95	3.34	0.85	3.26	0.90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	경제적 생활수준	2.90	0.93	2.85	0.77	2.88	0.85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	3.28	1.02	3.02	1.01	3.15	1.02
	정년 없는 직장과 노후 준비	3.70	0.92	3.43	0.99	3.57	0.96
근로 환경 등 건강한 생활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	2.91	0.98	2.68	0.85	2.80	0.92
	육체적 스트레스(농작업 등)	2.81	1.10	2.74	0.90	2.78	1.00
	정신적 스트레스	3.10	1.05	3.02	1.05	3.06	1.05
즐거고 편안한 생활	여가 선용의 충분성	2.76	1.03	2.74	1.08	2.75	1.06
	문화·여가취미 생활	2.67	1.11	2.42	1.06	2.55	1.09

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 귀농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중 가장 응답 빈도가 많은 분야는 전체 응답자의 28.5%인 농업인 기본수당 등 기본 생활보장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농 경력 5년차 이하인 귀농인의 농업소득이 적어 정착에 어려움을 갖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 그 다음으로 귀농인이 지원을 원하는 사업은 전체 응답자의 18.8%인 농산물 가공·판매·유통에 대한 지원이다.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요구사항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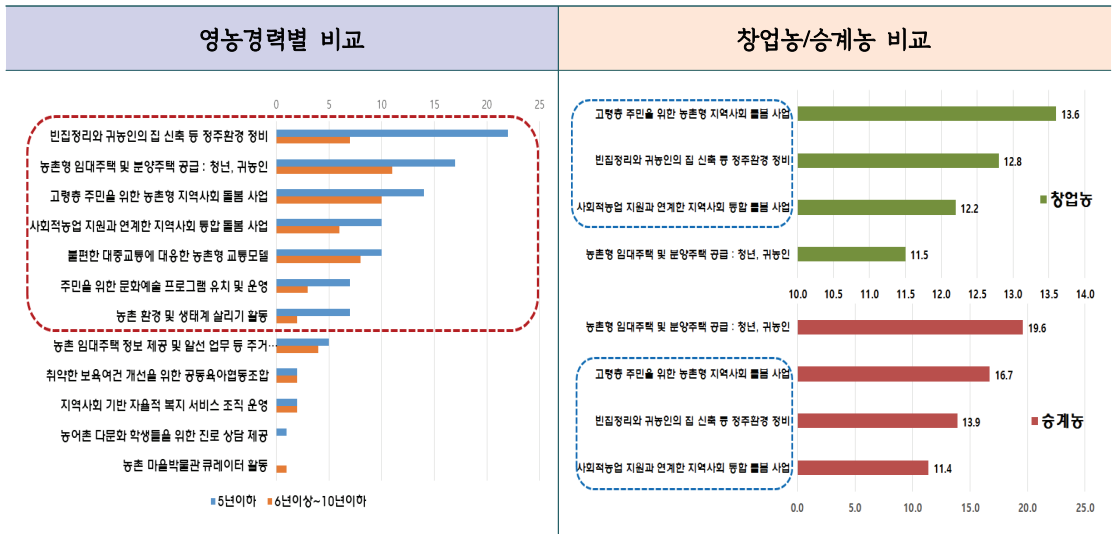
<표 16>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구분	창업농		승계농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농업인 기본수당 등 기본 생활보장	209	27.6	97	30.6	306	28.5
영농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지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96	12.7	34	10.7	130	12.1
영농 수준별 실습형 농업 교육 확대	66	8.7	36	11.4	102	9.5
창농 보육 프로그램 (창농지식, 투자유치, 경영, 마케팅 지원) 확대	90	11.9	28	8.8	118	11.0
신품종·신기술 습득 기회 제공	43	5.7	25	7.9	68	6.3
농산물 가공/판매/유통 지원	149	19.7	53	16.7	202	18.8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제공(문화교류, 일자리교류 등)	34	4.5	14	4.4	48	4.5
농촌주민 관계형성 및 주민 화합 지원	10	1.3	3	0.9	13	1.2
농촌 일자리 제공	17	2.2	9	2.8	26	2.4
영농상담 및 컨설팅	33	4.4	12	3.8	45	4.2
기타	9	1.2	6	1.9	15	1.4
계	756	100.0	317	100.0	1073	100.0

※ 순위별 가중치(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로 계산함

4)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 최근 농촌형 사회적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 귀농한 농업인들에게 지역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만들기 유형을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을 물었다.
- 주요 제시한 사회적일자리 종류는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류의 유형을 선별하였다. 영농경력별 비교에서 5년 이하 영농경력의 귀농인들이 사회적일자리 만들기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농과 승계농 비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령층 주민을 위한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사업’, ‘빈집정리와 귀농인의 집 신축 등 정주환경 정비’, 그리고 ‘사회적농업 지원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등을 선택하였다.



<그림 12> 귀농인이 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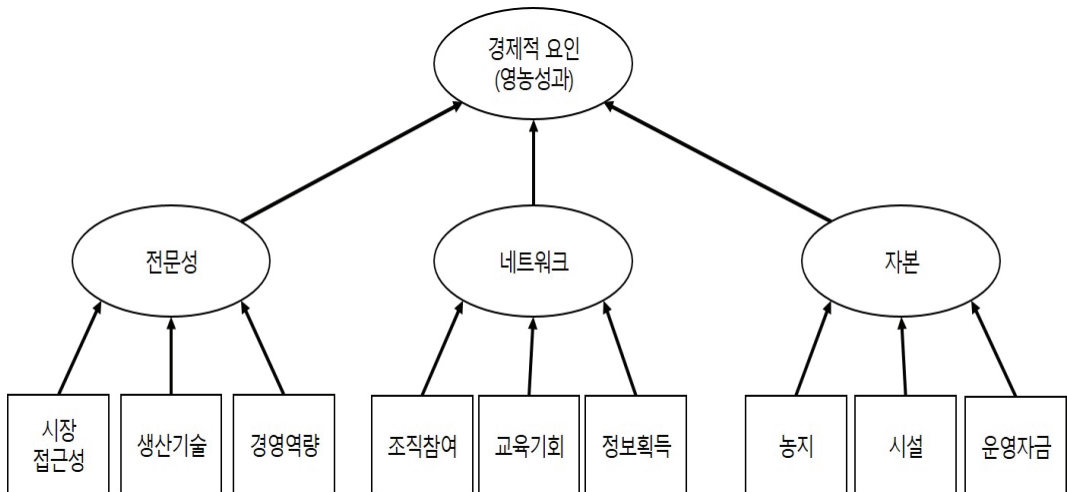
귀농인 성공적 정착 요인 분석

IV. 귀농인 성공적 정착 요인 분석

1)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변수와 요인 설정

1) (경제적 요인) 영농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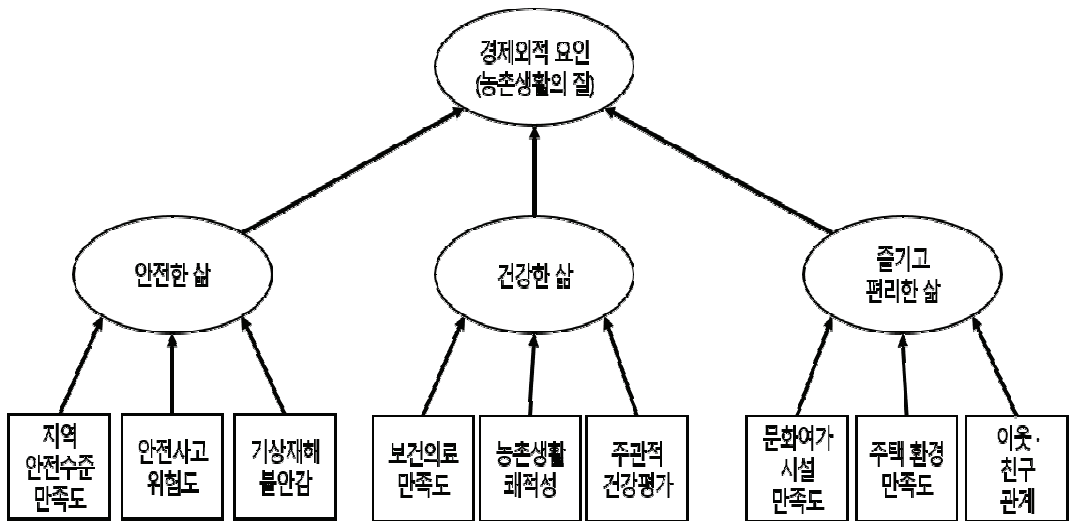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경기도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마상진(2019)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영농정착 성공의 척도를 농가소득과 삶의 질 만족으로 가정하고 농지특성, 창농과정, 농가경영특성, 지역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이 청년농의 정착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귀농인의 영농정착 관련 성공척도에 두 가지 분석 모형을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설정 하였다.
-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귀농인의 영농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으로 (그림 13)과 같이 모델을 설정하였다. 영농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전문성, 네트워크, 자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은 시장접근성, 생산기술, 경영역량을 구성하였다. 네트워크의 세부요인으로는 조직참여, 교육기회 그리고 정보획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본에는 농지, 시설, 운영자금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3> (경제적 요인) 영농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경제외적 요인)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두 번째는 경제외적 요인으로 귀농인의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찾는 것으로 (그림 14)와 같이 모델을 설정하였다. 농촌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안전한 삶, 건강한 삶, 즐기고 편리한 삶 등 세 요인을 구성하였다. 안전한 삶에 영향을 주는 세부 요인은 지역 안전수준 만족도, 안전사고 위험도, 기상재해 불안감을 구성하였다. 건강한 삶의 세부요인으로는 보건의료 만족도, 농촌생활 쾌적성 그리고 주관적 건강평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즐기고 편리한 삶에는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이웃·친구관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14> (경제외적 요인)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과 결과 (회귀분석)

1)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귀농인의 영농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농업소득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매출액의 관계식과 동일한 독립변인을 구성하였다. 회귀분석 방법으로 Tobi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회귀분석 결과, 농업소득은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자기자본비율, 경지규모, 기대소득, 소득 만족도, 시장확보 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 수준) 관련성이 있었다.

- 그러나, 귀농준비기간, 초기 자금액, 지역모임 참여정도, 기술경영개선, 승계농 여부, 귀농지역 구분 (농촌, 도농복합)은 농업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마상진(2019)의 연구는 창업농의 소득관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농업소득은 농지면적, 시설면적, 승계여부, 창업자금규모, 영농경력, 농업경영역할, 부기기업장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begin{aligned} \text{농업소득}_i = & \alpha + \beta_1 \text{영농경력}_i + \beta_2 \text{귀농준비기간}_i + \beta_3 \text{초기자금액}_i + \beta_4 \text{자기자본비율}_i \\ & + \beta_5 \text{기대소득}_i + \beta_6 \text{소득만족도}_i + \beta_7 \text{지역모임참여도}_i + \beta_8 \text{생산기술향상}_i \\ & + \beta_9 \text{경영역량강화}_i + \beta_{10} \text{시장확보노력}_i + \beta_{11} \text{승계여부}_i + \beta_{12} \text{농촌거주여부}_i \end{aligned}$$

<표 17>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Tobit Regression)

변 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항	-17539.470***	3578.630	-4.90	0.000
영농경력	447.032**	185.124	2.41	0.017
귀농준비기간	143.195	148.375	0.97	0.336
초기 자금액	0.006	0.007	0.91	0.364
주 재배작목	108.619**	52.946	2.05	0.042
자기자본비율	13894.830***	3492.613	3.98	0.000
경지규모	0.080***	0.028	2.83	0.005
기대 소득	0.311***	0.041	7.56	0.000
소득 만족도	606.080***	184.137	3.29	0.001
지역모임 참여도	78.010	119.132	0.65	0.513
기술경영개선	-43.625	56.249	-0.78	0.439
시장확보 노력	429.391***	163.272	2.63	0.009
승계농 여부	182.167	417.421	0.44	0.663
농촌 거주 여부	-19.046	361.689	-0.05	0.958

***, **, *는 1%, 5%, 10%유의수준을 나타냄

2)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Regression)

-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귀농만족도와 농촌생활 삶의 질을 선정하였다. 먼저 귀농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독립변인으로 영농경력, 귀농준비기간, 주재배작목, 자기자본비율, 경지규모, 기대소득, 소득만족도, 지역모임참여도, 기술경영개선, 시장확보노력, 그리고 승계농여부(더미변수) 등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회귀분석 결과, 귀농만족도는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자기자본비율, 경지규모, 기대소득, 소득만족도, 시장확보 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 수준) 관련성이 있었다.
- 그러나, 귀농준비기간, 지역모임 참여정도, 기술경영개선, 승계농 여부는 귀농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마상진(2019)의 연구는 창업농의 삶의 질 만족도 변인 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 만족도는 멘토의 유무, 지역활동 참여여부, 지역이 기대 여부, 지역 갈등의 유무, 생계가능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 수준) 관련성이 있었다.

$$\begin{aligned} \text{귀농만족도}_i = & \alpha + \beta_1 \text{귀농준비기간}_i + \beta_2 \text{지역모임 참여도}_i + \beta_3 \text{귀농성공도}_i \\ & + \beta_4 \text{귀농성취도}_i + \beta_5 \text{농가소득}_i + \beta_6 \text{매출액}_i + \beta_7 \text{소득만족도}_i \\ & + \beta_8 \text{농촌지역}_i + \beta_9 \text{경기북부}_i + \beta_{10} \text{경기남부}_i + \beta_{11} \text{경기동부}_i \end{aligned}$$

<표 18>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Tobit Regression)

변 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value
상수항	-19035.820***	4673.997	-4.07	0.000
영농경력	593.834**	242.026	2.45	0.015
준비기간	35.256	193.801	0.18	0.856
주 재배작목	130.349**	69.181	1.88	0.061
자기자본비율	16920.630***	4561.602	3.71	0.000
경지규모	0.099***	0.037	2.67	0.008
기대소득	0.353***	0.054	6.57	0.000
소득 만족도	596.211**	240.513	2.44	0.016
지역모임 참여도	-59.274	155.891	-0.38	0.704
기술경영개선	-68.878	73.480	-0.94	0.350
시장확보 노력	533.714**	213.249	2.50	0.013
창업농 승계농 구분	-201.782	546.436	-0.37	0.712

***, **, *는 1%, 5%, 10%유의수준을 나타냄

- 김철규 등(2011)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은 가족관계, 주민화합, 공동체가치, 귀농전 경험 활용 등의 다차원적인 조합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귀농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불어 종합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귀농인 애로사항과 지원프로그램

V. 귀농인 애로사항과 지원프로그램

1 귀농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 조사한 귀농인이 농촌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응하여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한 자료는 (표 19)와 같다.
- 애로사항을 열거하면 원주민과의 갈등, 공정하지 못한 기회, 실습중심의 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규제완화, 생활여건 개선, 기본소득, 멘토링 컨설팅, 영농기술 상담, 토지임차, 인력지원, 농산물가공제조, 농산물판매, 협동과 공유, 농촌일자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9> 귀농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 계속

분야	제안내용
갈등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과 갈등해소 • 이장과 갈등심화 및 원만한 문제해결 희망 • 지역주민과 귀농인 연결고리 역할 단체 : 귀농인 정착지원 센터
공정한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이 교육, 지원사업,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제공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실습중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스마트팜, 온라인유통, 농산물가공, 농산업 창업, 토양살리기 • 지원사업 제안서 및 계획서 작성 및 참여 방법
귀농전 체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전 사전준비 또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 귀농 예비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 • 귀농인 실패사례 및 대처방안 교육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지역내 영농시설 조성 규제 완화 • 농산물 활용 가공품 제조 판매 규제 완화 • 영농자금 대출 기준 완화 및 상환기간 연장 • 치유농장 체험농장에 화장실 설치 허가 요청

- 갈등해소는 귀농한 지역의 원주민 또는 이장과의 갈등심화 및 해결방안에 관한 것이다. 지역 주민과 귀농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단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귀농인은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애로사항을 열거하였다. 지역에서 각종 교육대상 및 지원 사업 선정시 정보력이 없는 귀농인에게 역량을 발휘할 할 수 있는 여건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하였다.
-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습중심의 교육을 원하였다. 기존의 품목별 재배 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온라인유통, 농산물가공, 토양살리기, 직접 집짓기 등을 원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 귀농 전 많은 예비자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하였다. 귀농인 성공사례 교육도 좋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실패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였다.
- 영농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내 영농시설 조성, 농산물 활용 가공품 제조 판매 등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영농자금 대출 기준 완화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도 포함되었다.
- 많은 귀농인들이 영농초기 농촌생활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업소득이 일정치 않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기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가족과의 안정된 농촌생활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과 영농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 귀농인 대다수가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농들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기반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존 선도농업인 또는 규모있는 농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발전모델을 제안하였다.
- 그리고 귀농초기 영농정착이 어려운 시기에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귀농 전 직업과 재능을 활용하거나 지역문제 해결형 농촌일자리 만들기 등도 제시되었다.
-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신기술 및 신품종 기술지원, 귀농인에게 토지임대 우선지원,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채용 간소화, 농산물 가공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이 귀농인 지원프로그램 제안으로 나타났다.
- 김정섭 등(2017)은 젊은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농업 부문 인적자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규 취농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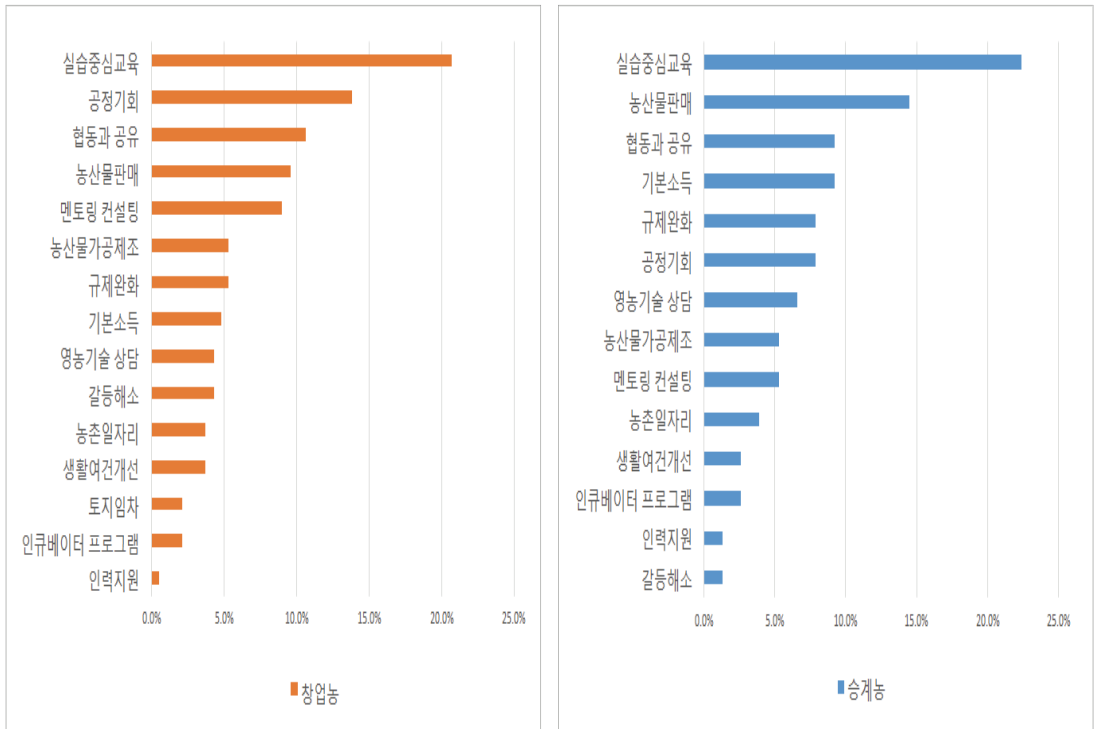
- 농업이라는 생업으로써 영농정착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에의 적응과정에서 귀농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폭과 깊이 면에서 매우 다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이 정착 실패를 하고 역 귀농을 하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귀농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작은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영농정착의 실패율도 줄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19> 귀농인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계속

분야	제안내용
생활여건개선 및 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생활 정착 지원,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손수 집짓기 프로그램 지원 • 기본소득, 농민수당, 농업인 소득보전, 기본생활 자금지원 • 농업소득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적임
영농기술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품종, 아열대 작물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선택 및 재배 교육 • 소자본 귀농정착 모델 개발 지원 • 멘토링 : 공무원, 선배농업인, 전문컨설턴트 등
토지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은행을 통한 토지임대차 활성화 • 귀농인에게 토지임대 우선순위 배정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승 부담,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 필요 • 외국인 노동자채용 간소화
농산물 가공 제조 및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 및 제품 생산 지원사업 참여 희망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기회 확대 및 교육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직거래장터, 로컬푸드매장 확대
협동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농들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기반 지원 • 기존농가와 협업과 공유를 통한 발전모델 제안 • 지역 선도농업인과 생산유통분야 협업 희망 • 규모있는 농산업체와 협업 희망
농촌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초기 정착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지역문제 해결형 농촌일자리 만들기 • 귀농전 직업과 재능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희망

3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도 분석

- 응답한 귀농인을 창업농과 승계농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 창업농은 실습중심교육 > 공정기회 > 협동과 공유 > 농산물판매 > 멘토링컨설팅 > 농산물 가공제조 > 규제완화 > 기본소득 > 영농기술상담 > 갈등해소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승계농은 실습중심교육 > 농산물판매 > 협동과 공유 > 기본소득 > 규제완화 > 공정기회 > 영농기술 상담 > 농산물가공제조 > 멘토링 컨설팅 > 농촌일자리 > 생활여건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 양측의 공통점은 실습중심교육에 가장 많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창업농은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기존 선도농가 대비 공정한 기회와 협동과 공유를 요구하였다. 승계농은 기존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농산물판매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6>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도 분석

4 경기도 귀농인이 참여하는 농촌일자리 만들기 제안

- 귀농 후 영농경력별 소득 비교에서 언급한 영농경력 5년 이하 귀농인의 낮은 소득수준과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도 분석 중 농촌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하여 경기도 귀농인을 위한 농촌일자리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자 한다.
- 김정섭 등(2017)은 귀농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책을 확대하고 정착한 이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수행 등(2017)은 농촌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촌창업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일환으로 예비 농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을 체험하게 한 후 창농을 하도록 도와주는 예비농업 창업존을 제안하였다.

1) (그린 뉴딜) 농업분야 공익형 일자리

-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 이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공익형 일자리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 및 기상악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피해 현장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 병해충 지역별 현장 예찰 요원이다. 경기도는 최근 과수화상병, 외래병해충 등에 취약한 지역이다.
- 식물 병해충 현장 예찰을 민관협동 체계로 구축할 수 있다. 「민간 병해충 예찰단」 발족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부족한 지도 행정력 보완할 수 있다. 지역 귀농인과 지도행정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 방역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 관련 특별교육 병행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민간 병해충 예찰단 구성은 연간 농업소득 3천만원 이하 귀농인 중 선발한다. 특히 과수 등 병해충 및 기후변화 관련 민감한 작목 재배농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귀농인의 주요 재배작목은 창업농, 승계농 모두 과수가 가장 많았다.

2) (지역 뉴딜) 농촌분야 사회적 일자리

- 다음은 지역 뉴딜과 연관된 농촌분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귀농인이 희망하는 농촌분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정리하였고 관련하여 경기도 귀농인 참여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표 20)와 같이 찾고자 한다.

- 교육 분야로 농촌 빈집정리 및 귀농인 집짓기 프로그램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손수 집짓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예술, 운동 등 지도를 위한 동아리 강사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지역 마을단위 협동과 돌봄 사업이다. 마을단위 특산물을 활용한 생산과 판매활동을 위해 사회적 협업농장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귀농인 중에는 청년들이 많다. 새롭게 가족을 꾸리고 영유아가 있는 귀농인은 육아 문제가 큰 걱정거리다. 이에 대응해 농촌마을 공동육아 및 마을학교 협동조합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단위 공동부엌 운영 및 노인 식사지원, 생필품 구매 활동 지원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
-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귀농인에게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온라인 SNS 활동을 통한 지역과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운영할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단 운영을 해 볼 만한 사업이다.

<표 20> 분야별 사회적 일자리 유형

분야	일자리 만들기 유형
교육	농촌 빈집정리 및 귀농인 집짓기 프로그램 등 주거환경 개선 (집짓기 교육) 방과 후 교실, 동아리 활동 강사 (방과 후 학생들의 학업, 예술, 운동 등 지도)
협동 돌봄	마을단위 특산물을 활용한 생산 판매 등 사회적 협업농장 운영 농촌마을 공동육아 및 마을학교 협동조합 운영 마을단위 공동부엌 운영 및 도우미 (노인 식사지원, 생필품 구매 활동 지원)
홍보 마케팅	농산물 SNS홍보단,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단 활동 (온라인 마케팅 지원) 마을 SNS홍보단 (농촌마을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

- 김정섭 등(2017)은 귀농인구가 농촌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직 활동 참여 사례 등장을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보았다. 그 대표적 사례로 방과 후 학교수업 위탁 협동조합 ‘초록누리협동조합’과 농촌분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여민동락공동체’를 제시하였다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마을은 노인비율 40%인 고령화 지역으로 이 지역에 귀농한 농업인들이 자립적인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복지활동, 일자리 만들기, 마을학교 및 예능교실을 운영하였다(표 21).
-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 및 판매장 운영, 모싯잎 송편 생산 판매하는 협업농장을 운영하고 지역 고령 농촌노인들이 참여케 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자립적인 복지를 추구하였다.

- 점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공동체에 합류한 귀농·귀촌인이 처음 3농가를 시작으로 하였으나 36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21> 여민동락공동체 우수사례

(우수사례) 여민동락공동체 - 영광군 묘량면

- 노인비율 40%인 고령화 지역공동체 조직
 - 귀농인들이 자립적인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 주민복지활동, 마을학교, 일자리, 예능교실
- 농촌노인이 참여 협업농장 운영
 - 가공공장 및 판매장 운영, 모싯잎 송편 생산 판매
 -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
- 공동체에 합류한 귀농·귀촌인 증가 : 3→36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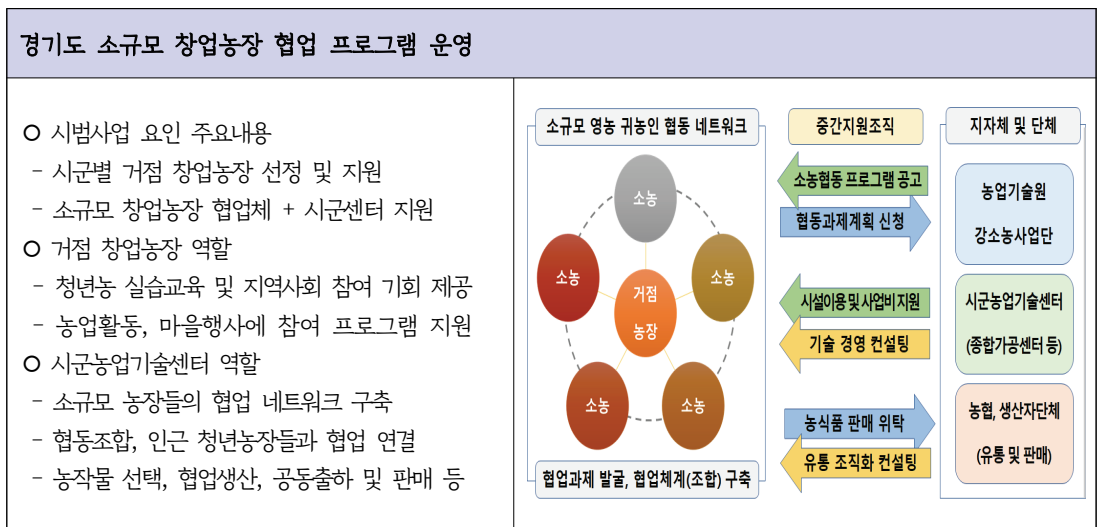


3) (지역 뉴딜) 소규모 영농 귀농인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

-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청년 귀농인의 대다수는 소규모 영농인이다. 앞서 분석한 귀농인의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중에는 소규모 귀농인의 협업과 공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농 귀농인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농촌일자리 만들기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표 22).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공동체 협업 프로그램 분야도 신규 귀농인에게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와 농업인간 직거래 농업 또는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 포함될 수 있다.
- 귀농인은 귀농하기 전 도시에서 쌓은 경험과 재능을 바탕으로 도농공동체 프로그램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그리고 일부 앞서가는 귀농인은 지역에서 거점 선도 창업농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지역내 귀농인들과 협업하고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하 영농경력의 귀농인이 지역 선도농장에서 농사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단위 거점 창업농장을 선발하고 지역내 귀농인들과의 협업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선도농장은 귀농인 중 창업으로 성공한 농장 또는 선도농장으로서 타 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협업과제는 거점 창업농장과 주변 소규모 농장을 발굴 선정하여 3년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목선택, 공동생산, 공동출하 및 마케팅이 가능한 농장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우선지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거점 창업농장과 협업을 이루는 네트워크 협업과제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2> 경기도 소규모 창업농장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박대식 등(2018)은 협동조합 부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로 충남 홍성군의 젊은 협업농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도 젊은 협업농장이 추진한 영농 귀농인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 분야 일자리 만들기의 좋은 본보기로 추천한다.
- 젊은 협업농장은 농사경험과 지역연고가 없는 청년농업인 정착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사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마을행사에 참여 프로그램 운영한다(표 23).
- 입소문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인근 청년농장들과 협업을 연결하였다. 특히 인근 행복농장(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미래농업인은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조를 내세우고 있다.

<표 23> 홍성군 젊은 협업농장 우수사례

(우수사례) 홍성군 젊은 협업농장 - 홍성군 장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경험 및 지역연고 없는 청년농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 농업활동, 마을행사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영농조합법인 설립, 인근 청년농장들과 협업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농장(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협력 ○ 미래농업인 : 농업 종사 + 농촌 활동 역할 발휘 	

VI

요약 및 결론



VI.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경기도 귀농인 조사를 통해 귀농실태 분석과 영농정착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농업소득(경제적 요인)과 농촌생활의 만족도(경제외적 요인)로 구분하여 계량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귀농인이 원하는 요구도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농촌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기도 농가인구는 감소와 함께 귀농인 유입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귀농인 유입 감소는 농업·농촌의 삶이 기대한 것 보다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귀농인 성공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 연천군 등 13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귀농인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180명이었다. 응답자 중 5년 이하의 농업인은 97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전체의 3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농은 127명으로 71%를 차지하였고, 승계농은 53명인 29%로 나타났다.
- 귀농 전 소득과 귀농 후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농경력 5년 미만인 귀농인의 경우 귀농 후 농가소득이 귀농 전 가구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농업소득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농업·농촌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보건의료, 복지 등 10개 분야 26개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5점 척도에 의해 조사하였다. 만족도가 3점 미만으로 낮은 분야는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접근성, 복지시설 이용 및 농촌복지정책, 자녀교육여건, 대중교통 여건, 농작업 안전, 경제적 생활수준,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여가선용의 충분성 등 즐기고 편안한 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귀농인의 농가소득이 귀농 전 가구소득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경제적 요인을 영농성과로서 농업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을 하였다. 그리고 경제외적 요인으로 귀농인의 농업·농촌 생활의 만족도가 귀농 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농업소득을 종속변인으로 Tobit Model을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 농업소득에는 영농경력, 주 재배작목, 자기자본비율, 경지규모, 기대소득, 소득만족도, 시장확보 노력과 같은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 수준) 관련성이 있었다.
- 귀농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관계식을 회귀분석한 결과, 귀농만족도는 영농경력, 주 재배작목, 자기자본비율, 경지규모, 기대소득, 소득만족도, 시장확보 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 수준) 관련성이 있었다.
- 귀농인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습중심교육, 공정기회, 규제완화, 협동과 공유, 농산물판매, 멘토링, 컨설팅, 기본소득, 인큐베이터, 농촌일자리, 농산물가공제조, 생활여건개선, 영농기술상담 등이 많은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 영농경력 5년 이하 귀농인의 낮은 소득수준과 귀농인 애로사항 및 요구분석 중 농촌일자리 만들기과 연계하여 경기도 귀농인이 참여하는 농촌일 자리를 세 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농업분야 공익형 일자리로 기후변화 및 기상악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피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이다. 둘째, 농촌분야 사회적 일자리로 마을단위 교육, 협동, 돌봄, 홍보 사업이다. 그리고 소규모 영농 귀농인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단위 거점 창업농장을 선발하고 지역 내 소규모 귀농인과의 협업과제를 추진케 함으로써 농업창업과 영농규모화를 지원한다.

참고문헌

1. 김정섭 등(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제151호.
2. 김철규 등(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연구보고서』.
3. 농림축산식품부(2020),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추진 방향”.
4. 농촌진흥청(2020), “2019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5. 박공주 등(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제12권 제4호 p63-76.
6. 박대식 등(2018),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7. 박문호 등(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박시현 등(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 R7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마상진 등(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마상진 등(2019),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42권 제1호 p27-49.
11. 마상진 등(2018), “신규 취농 진입장애요인과 영농성과의 구조적 관계”, 『농촌경제』 제33권 제4호 p1-18.
12. 이수행 등(2017),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정책연구』 2017-94, 경기연구원.
13. 이수행 등(2018), “경기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방안”, 『정책연구』 2018-28, 경기연구원.
14. 최윤지 등(2014), “귀농정착자의 정주만족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25(3) : 321-338.
15. 통계청(2020),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경기농업 FOCUS 제2020- 5호

경기도 귀농인 영농정착 실태조사 분석 및 지원방안

발간등록번호 : 71-6410563-000129-01

발행일 : 2020년 12월

발 행 :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감 수 : 연구개발국장 박인태

편 집 : 작물연구과장 조창휘

집 필 : 이원석, 이진홍, 정재원, 이정명, 엄하정, 이인숙,
이은숙, 박장순

발행처 :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전화 031-229-5786, 팩스 031-229-5962)

「경기농업 FOCUS」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농업경영정보자료에서 제공됩니다.

첨단농업 과학농업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U-경기농업기술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TEL. 031.229.5786 FAX. 031.229.5962

<http://nongup.gg.go.kr>